

# 한약재 수출확대 적극 나설때 자연요법 확산...해외소비 급신장

세계보건기구(WHO)가 전통의학의 가치를 인정하고 미국과 유럽등에서 자연주의 회귀현상이 늘어나면서 전세계적으로 한약재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한약재 시장 규모는 30억달러 수준으로 전체 의약시장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95년 25억달러에서 지난해에는 38억달러로 시장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등 서유럽국가들 역시 한약재 사용량이 해마다 크게 증가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준

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이 한약재 사용이 크게 늘어난 것은 70년대에 태어난 소위 베이비붐 세대가 자연적인 방법을 통하여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나라는 인삼을 제외하고 1백여 품목의 한약재를 수출했으나 수출금액은 1백60만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대표적 수출품목인 인삼의 경우도 90년 1억6천5백만달러 수출을 정점으로 매년 수출이 감소 지난해에는 9

천3백만달러에 그쳐 해외시장 개척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값싼 중국산 한약재로 인해 설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국산 고급 한약재의 활로를 해외시장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국산 한약재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한약재의 효능은 물론 한방선진국인 국내 한방기술을 적극적으로 해외에 홍보하는 한편 품질향상과 상품화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 “우리 토종꽃 보러오세요”

‘우리산하 우리꽃’이라는 주제로 <제9회 우리꽃 박람회>가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리고 있다. 4월 30일부터 5월9일까지 10일 동안 개최될 이번 박람회는 우리고유의 자생식물 자원을 보존하고 우리꽃을 농가소득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

산림청과 서울시, 한국일보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자생식물협회와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관하는 금번 전시회에는 전국의 자생식물 재배농가와 우리꽃 애호가들이 참여, 우리고유의 아름다움을 가진 야생화 2만여점을 출품했다. 여기에는 우리꽃으로 꾸며진 표본전시관을 비롯하여 조경전시관, 분경·분화, 우리꽃 사진, 우리꽃장식등이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전시회 기간중 매일 입

장객에게 우리꽃씨 나누어주기, 꽃사진 촬영특강, 분경·분화특강등 관련행사가 다채롭게 준비돼 있다. 또한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로 우리꽃 이름 알아맞추기 대회도 개최한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회귀 또는 멸종위기에 처해 있거나 우리나라에서만 서식하고 있는 아름다운 우리꽃에 대한 사진전이 눈길을 끈다.

우리 자생식물은 세계적으로도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외국으로부터 로얄티를 받을 수 있는 수출 유망 품목. 이번 우리꽃 박람회를 계기로 우리 자생식물의 보전과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움은 물론 자생화산업은 21세기 유망한 수출산업으로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인삼, 환경호르몬 퇴치에도 효과 고엽제 생식기 방어효과 뛰어나

항암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삼이 환경호르몬 퇴치에도 강력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연구결과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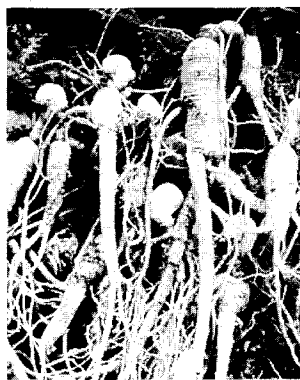
한국인삼연초연구원 김시관 박사과 충북대의대 비노기과 김원재 박사는 환경호르몬 중독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진 고엽제(TCDD)에 대한 생식기 독성방어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실험동물에 인삼을 투여한 결과 생식기능 저하를 강력하게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동안 환경호르몬의 독성에 대한 연구는 많았으나 환경호르몬 독성을 방어할 수 있는 생약재 연구는 세계적으로도 인삼이 처음이다. 연구팀은 기니퓰 80마리를 정상군, 고엽제 단독투여군, 6년근 홍삼추출물 단독투여군 등으로 나눠 대조한 결과 고엽제 단독투여

군은 실험 18일만에 모두 죽은 반면 나머지는 모두 살아남았다.

이와함께 연구팀은 인삼의 환경호르몬 예방효과를 알기 위해 홍삼을 먼저 먹이고 고엽제를 투여한 군(P)과 치료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고엽제에 먼저 노출시킨뒤 홍삼을 먹인군(C)도 실험에 참가시켰다. 그결과 홍삼의 투여는 고엽제에 노출된 이들 P, C군 기니퓰의 생존률을 40%에서 70%까지 높여줬다. 이와함께 Y염색체를 집중공격해 수컷의 출산을 약화시키는 고엽제 성격으로 인해 고엽제에 노출된 P, C군이 출산한 새끼는 암컷에 대한 수컷 비율이 1:0.69~0.83마리였으나 홍삼 단독투여군은 1대 1.1마리까지 높아졌다.

또 정자의 활동성을 나타내는 직진운동 비율도 정상



군의 정자는 56.6%였고 홍삼 단독투여군은 73.1%로 활발한 반면 고엽제 단독투여군은 정자가 거의 생성되지 않았고 일부 생성된 정자도 머리 부분에 기형이 관찰됐다. P군과 C군 정자의 직진운동 비율도 고엽제에 노출된 탓에 44%, 45.8%로 떨어졌다.

고엽제란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대량 살포한 다이옥신계열 제초제로 이제까지 인간이 합성해낸 화합물중 가장 맹독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김시관 박사는 “인삼은 환경호르몬으로 야기되는 고

환, 간, 신장 기능의 저하를 방어해 주는 효과와 함께 정자의 질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삼을 꾸준히 복용하면 앞으로 정상적인 후손을 보는데는 지장이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 지리산 들꽃 증식 무료보급

산림청은 지리산 들꽃을 증식, 무료로 보급한다. 산림청은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들꽃을 보전하기 위해

서부지방 산림관리청 국유림 양묘 포지에서 긴병꽃풀, 복주머니꽃, 금낭화 등 50여종의 들꽃을 증식해 2000년부터 국민들에게 무료로 보급기로 했다.

현재 서부 지방산림 관리청 남원양묘장(전화 0671-635-4603)에서 증식되는 들꽃은 지리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 전지역에서 볼수 있는 대표적인 들꽃이다.

### 1단|신|

#### ‘전주 약령축제’ 10월 8일 개최

조선시대 약령시로 번창했던 전주약령시의 전통을 되살리기 위한 전주약령축제가 오는 10월8일부터 10일까지 전주 시내 일대에서 펼쳐진다. 이 행사에는 약령시 고증자료 전시회, 한약재 전시, 약초 채집대회, 한방민간요법 특강, 한방요리 강좌, 약술담그는 법등이 열릴 예정이다. 또한 이 축제기간에 한방 무

료진료도 실시될 계획이다.

#### 제5회 국제녹차심포지엄

사단법인 한국식품과학회(회장 조재선)는 5월7일 오후 1시부터 5시30분까지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제5회 국제녹차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녹차와 당뇨병/녹차와 환경호르몬’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내및 일본과 중국의 저명한 과학자들이 초청돼

녹차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토론의 장도 마련된다. 우리나라와 함께 녹차를 즐겨 마시는 일본및 중국을 중심으로 녹차에 대한 연구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으며, 유럽및 북미에서도 녹차의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 약용작물학회 학술발표회

한국약용작물학회는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충북대학교 농과

대학 대강당에서 99년 정기총회및 춘계학술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학술포럼과 견해 열릴 이번 행사에서는 첫째날인 28일 △천마생산, 수요확대를 위한 포럼, 29일에는 △정기총회 △중국의과학회원 약용식물연구소장 Shi-Lin Yang박사의 ‘중국의 약용식물 개발현황’ 특강 △한국토종약초 연구회 최진규 회장의 ‘인류의 질병과 한국의 회귀약초’ 특강

이 이어진다.

#### 경동약령시 대축제

경동약령시협회는 6월1일 경동약령시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수국산 한약재 전시회 △수입한약재 전시회 △노약자를 위한 무료진료및 투약 △녹용전시회 △약용주 약용음료및 차 시음회 △약썰기 대회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